

## 渤海 건국 초기의 冠服에 대한 小考

전현실\*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698년에 건국된 발해[震國]는 건국 초기부터 唐, 日本 및 突厥, 奚 등의 주변 국가들과 政治的 交流 關係를 유지했었고, 당시 唐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동돌궐에도 698년, 첫 사신을 보내어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적극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고립 상태에 빠졌던 당은 당시 발해와 우호관계는 아니었으나, 中宗(705~710)은 복위 원년인 705년에 侍御使 張行岌을 보내어 발해와의 친선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조영은 둘째 아들인 大文藝를 宿衛로서 당에 파견하였다. 이후 발해는 일본과도 727년부터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여 약 200년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해가 국가 간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사신을 파견한 예는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데, 이 때 발해 사신들이 착용한 발해 초기의 관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는 건국 후, 2대 武王 大武藝의 영토 확장기를 거쳐 3대 文王 大欽茂(737~793년)의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官服制度를 포함한 모든 제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복식제도의 완성 시기는 문왕이 738년에 당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禮書를 습득하여 제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후 중경으로 천도하여 5경의 제도를 확립하고 정권의 안정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739년~742년경으로 사료된다. 이때는 발해 건국으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후로서, 당시의 복식 제도는 《新唐書》 渤海傳에 의하면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므로, 발해 건국 초기의 관복 제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발해 건국 초기에는 아직 발해의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제도가 완비된 문왕대의 것과는 다를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고 그 국가의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기의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제도를 계승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발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에는 그들의 문화 계승국인 고구려의 제도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발해의 건국 시점에서 멸망기까지 발해의 주요 관직에 임하여 주도적으로 발해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은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 당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 이전 시기인 발해 초기에는 발해의 지배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고구려인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唐 服飾 文化를 수용하게 되는 문왕대 이전까지의 渤海의 관복은 襦, 衿 二部式의 고유복식형태를 지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벽화(7세기 후반~8세기 초)나 章懷太子 李賢 묘 벽화(706년)에 묘사된 韓人의 복식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이 인물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모두 變形 鳥羽冠에 우리나라 고유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발해 건국 초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그 제도를 수용한 건국 초기 발해인의 관복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唐 服飾 文化를 수용하기 전까지의 渤海의 관복은 折風形의 관모와 襦, 衿 二部式의 고유복식형태로 8세기 전반까지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8세기 중반 문왕이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당 복식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739년~742년경에 이르러 발해의 관복은 고유복식의 초기 형태를 벗어나 당의 관복과 유사한 형태 및 구성(團領, 幘頭, 帶, 靴, 魚袋)으로 변화·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모습은 정효 공주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